

조선시대 禮書에 나타난 建築的 圖面의 解釋에 관한 연구

洪升在
(홍익대학교 강사)

1. 서론

조선왕조 開創의 주역이며 당시 建築造營 計劃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사대부들은 禮書와 經書를 즐겨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신의 주장과 정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 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한 기본개념도 얻었다. 특히 禮書에는 禮制의 일부로서 建築의 制度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 실려있는데, 이것은 유교의 이상적 통치이념 및 윤리실천을 위한 도구로서 일종의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통치자들은 예서상의 건축제도를 理想的 古制로서 인용하며 건축의 典型的 形制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古制를 밝히는 것은 조선시대 건축조영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고려말 『朱子家禮』의 전래이후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통치적 지배이념에 힘입어 국가 또는 개인에 의해 다수의 禮書가 편찬된다. 특히 15세기말 『五禮儀』(1474) 출간과 『經國大典』(1469)의 편찬이 완료된 뒤를 이어 16·17세기 禮治의 시대가 되면 家禮의 보급이 일반화되며 많은 예서가 편찬되어진다. 대부분의 禮書는 『朱子家禮』를 기본

으로한 해설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일부 圖式이나 세부항목에서는 예제의 해석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예서 중에는 중국 학자들의 禮說등을 인용하여 건축적 도면과 함께 옛날의 제도(古制)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儒者들이 이상적인 건축제도로 인식하였던 古制를 밝히고 나아가 조선시대 건축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朝鮮時代 家禮의 履行과 禮書

조선왕조는 신진사대부들이 지배층을 형성함에 따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이 채택되었으며, 國是에 발맞추어 사상적 획일화를 위해 儒敎的 禮制의 行用을 장려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유교적 예는 五禮와 家禮로 대별되어진다. 五禮와 家禮는 본래 중국의 三禮, 즉 『周禮』·『儀禮』·『禮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三禮가 五禮와 家禮로 분리된 것이다. 五禮는 三禮중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와 왕실의 예를 일컫는 것이고, 家禮는 五禮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가족제도의 발달과 궤를 같

이 하면서 형성된 私家의 예이다. 특히 성리학의 전래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에 전해진 『朱子家禮』는 유교적 생활양식을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家禮의 行用은 윤리적인 형식으로 권장하게 되지만 法制面에서 禮의 行用이 강력히 요구되었던 것에 못지 않게 그 시행이 강요되었다. 이는 주자학의 수입 및 발달과 더불어 가례도 朝野의 四禮 준칙으로 받아들여져 일부 지배층에서 行用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가례의 禮制가 조선이 받아들였던 大明律과 經國大典의 四禮와 일치하고 있었으므로 法制가 強制力을 띠게 되자 이와 함께 四禮의 行用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적 예제의 보급과 정착에 다른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사회질서는 일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고려말에도 일부 관리층에 의해 간헐적이지만 가례에 의해 喪禮를 치룬 기록들이 남아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로서 家禮는 아직 저변에까지 확산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가례에 의한 行禮는 주자학이 지배적인 대세가 되어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던 조선 초기에도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禮俗, 주로 불교적 습속과 민간신앙에 의한 禮俗이 유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朝鮮時代에 『朱子家禮』의 실천은 우선 王室이나 士大夫家에서 나타난다.¹⁾ 민간의 예로써는 聖州人 金自強의 기록이 발견되는데 褒賞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그 예는 아직 흔치 않은 것이었다. 이에 政府에서는 『朱子家禮』를 보다 널리 施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되며, 太宗 3년에는 정부관리의 시험과목으로 『朱子家禮』를 포함시키고 『朱子家禮』를 인쇄하여 配付하기도 한다.²⁾ 世宗代에 이르면 이같은 추세는 더욱 본격화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朝鮮 前期³⁾의 禮에 대한 관념은 精神構造的 側面에서 보다는 社會 制度的 側面에서 받아들여지므로써 治者と 支配層을 중심으로 강제성을 띠며 전개되었다

15세기 말엽부터 새로운 정치세력인 士林派의 등장과 함께 조선 중기가 되면 위로는 정치이념으로써 유교가 절대적인 권위로 군림하게 되고, 밑으로는 생활 규범으로서 禮制가 鄉民을 지배하게 되는 禮治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조선 중기 사회가 禮治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예제 보급을 위한 前時代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倭亂·胡亂을 겪으면서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갈망하게 되는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前代와 비교하여 정치·사회·경제적 요소들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조선 중기 사회의 시대적 상황도 그러한 배경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士林들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深化와 더불어 『朱子家禮』에 대해서도 이해의 깊이를 더해갔다. 동시에 이들은 鄉約 실시를 통하여 鄉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갔으며, 신분적으로는 士族으로 고착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지주화되어 가면서 향촌사회의 안정과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家禮書를 만들게 된다. 17세기초의 대표적인 禮學者로는 鄭述와 金長生을 들 수 있다. 鄭述는 『朱子家禮』뿐만 아니라 宋代의 禮說과 『儀禮』, 『禮記』 등을 정리하여 『家禮輯覽補註』, 『五先生禮說分類』, 『禮記喪禮分類』, 『五服沿革圖』를 選述하였다. 金長生은 『朱子家禮』를 근간으로 하여 『家禮輯覽』 등의 禮書들을 완성하였다.⁴⁾ 앞시대에 간행되었던 많은 禮書들이 『朱子

1) 『太宗實錄』 卷 15, 8년 5월, 癸酉條
 『太宗實錄』 卷 16, 8년 7월, 乙卯條
 『世宗實錄』 卷 16, 4년 4월, 乙巳條
 2) 『世宗實錄』 卷 6, 3년 9월, 申戌條

3) 조선시대 儒敎的 禮制의 보급과 정착과정은 지배세력 및 정치제도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배세력의 변화에 따른 정치사의 시대구분에 따라 三期, 즉 朝鮮 開國부터 15세기 후반까지를 前期, 中宗 이후 士林派의 등장을 계기로 16세기에서 17세기 朋黨政治가 실시되는 기간까지를 中期, 실학이 발달하고 정치개혁이 시도되는 영·정조 이후를 後期로 구분하여 그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4) 黃元九, 『李朝 禮學의 形成過程』, 『東方學志』 6輯, 延大 東方學研究所, 1963, p. 259

家禮』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각 家門의 生活 規範書의 성격을 지녔던 것과 달리 鄭述과 金長生의 書禮들은 『朱子家禮』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禮書들은 그 내용이 家禮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奉先·追遠과 같이 祭禮에 대한 것이 아니면 喪禮와 같은 부분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7-18세기에는 禮書의 發刊이 더욱 활발하여지며 관심의 폭도 家禮 전반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가례의 사회적 기반인 씨족집단의 독자적인 의례까지도 출현된다. 그것은 이미 君子가 되는 實踐的 手段으로서 家禮가 日常生活化 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당시의 여러가지 社會的 條件이 家禮를 日常生活에서 수행하는데 적합했음을 뜻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 鄉族과 守畝에 의해 士族 중심의 향촌사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敎化 위주로 이끌어 가던 鄉約도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향촌사회의 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하자 그때까지의 자율적 규제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향촌사회에서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유일한 가치규범으로써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조선시대 봉건적 지배구조 속에서 근간이 되는 양반계층이 사회의 주도세력으로써의 지보를 잃게 되는 역사적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8세기말 西學의 流入과 19세기말 門戶의 개방으로 물밀듯이 들어온 외래의 사상과 종교는 향촌질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유교적 지배윤리로 이끌어져 왔던 조선 왕조의 대단원 막을 내리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교적 실천윤리는 그 형식과 내용이 변화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意識과 生活 속에 殘存하고 있다.

5) 張哲秀, 「文獻資料」 『慶北禮樂誌』,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9, pp. 177~183

3. 禮書에 나타난 建築的 圖面

(1) 寢廟辯名圖

朝鮮時代 儒學者들이 쓴 禮書 가운데 金長生의 『家禮輯覽』(1685)⁶⁾, 과 『家禮源流』(1711)⁷⁾ 에는 漢代의 대표적 禮學者인 鄭玄을 비롯하여 여러 儒家들의 禮說과 儀禮圖를 參考하여 古代의 建築制度를 기술하고 있다.

그중 『寢廟辯名圖』는 古代 宮室의 配置構造 및 각 부분의 명칭이 기입되어 있어 古代의 建築制度를 살필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家禮輯覽』 圖說編과 『家禮源流』에 각각 실려 있으며, 같은 類로서 『家禮輯解』 卷五 圖式⁸⁾ 편의 『寢廟之圖』가 있다. 세개의 도면은 전체적인 配置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의 명칭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家禮輯覽』의 『寢廟辯名圖』 상단에는 三代宮慮라 쓰여 있어, 여기에서 圖說하는 寢廟의 配置와 構造가 三代(夏, 殷, 周)의 宮室制度임을 알 수 있다. 古代에 宮室⁹⁾은 일반적인 居處를 뜻한다.

6) 朝鮮 中期의 학자 金長生이 『家禮』를 增補, 解說한 책으로 1685년(숙종 11년)에 宋時烈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의해서 刊行되었다. 禮經의 精神과 家禮의 원칙, 그리고 時俗의 變禮를 상고하는데는 물론 家禮의 사용에서 오는 시비를 판단하는데 권위있는 준적으로 사용되었다.

7) 1711년 좌의정 이어명이 肅宗에게 품신하여 용담현령으로 있던 俞槩의 손자 相基가 간행한 이 책은 俞槩와 尹宜擧가 같이 엮은 것이다. 그 뒤 尹宜擧의 아들이자 俞槩의 문인이기도 한 尹拯도 여기에 많은 增補를 하였다. 이 책은 四禮의 발달과정을 항목별로 이해하는데는 많은 참고가 되지만 여러 고전에서 관계사항을 발췌하여 엮은 것일뿐 엮은이 주장이 전혀 없어 조선시대 가례 인식의 한 면모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간행은 한편으로 노론(俞相基)과 소론(尹拯)으로 분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8) 조선후기의 학자 辛夢參이 가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선유들의 학설과 자신의 의견을 달고 圖를 그려 해설한 책으로 1928년 後孫 和植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9) 예로 부터 宮과 室은 한가지였다. 漢代 이후 황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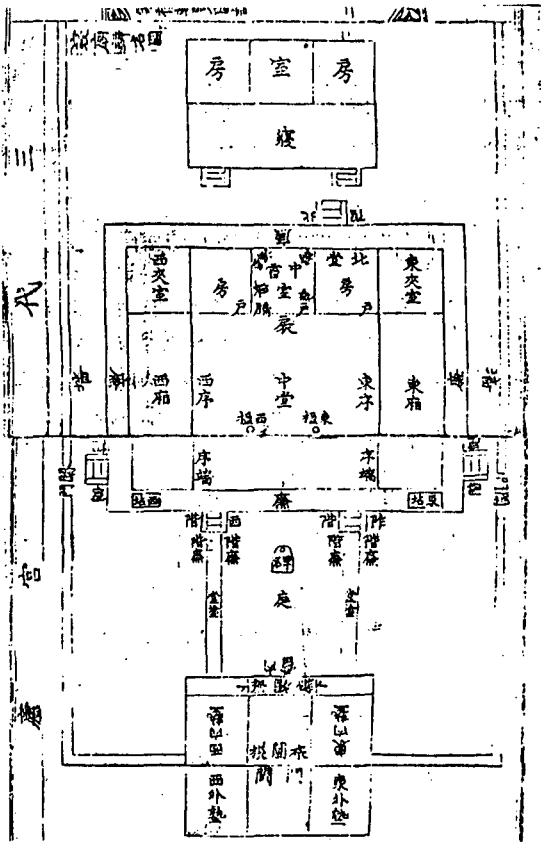


그림 1 寢廟辯名圖 (家禮輯覽)

황제의 거주처인 황궁을 비롯하여 일반 住宅 및 승려들이 거주하는 廟宇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거의 모든 류의 건축이 이 宮室制度에 근본을 두고 發展되었다 할 수 있다.

中國의 古代 宮室 모습에 대해서는 『詩經』(小雅, 斯干)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지만, 宮室制度를 전문적으로 서술한 것은 『爾雅·釋宮』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宮室 부위의 명칭만을 나열했을 뿐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 說明이 결여되어 있다.

宋代 李如圭의 『儀禮·釋宮』이 나타나면서 古代 宮室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연한 모습을 드러

자신의 집을 「宮」이라 부른 이래로 황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宮」이라 부르지 않았다. (李允鉾, 著, 中國古典設計原理分析, plus, 8901 p165 참조)

내게 되었다. 그 이후 清代에 이르기까지 儒家들에 의해서 宮室에 관한 여러 논의와 고고학적 보완이 이루어 지지만 대부분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三代의 宮室制度를 조선시대 禮書에 나타난 寢廟圖(寢廟辯名圖, 寢廟之圖)를 中心으로 살펴보면 門, 庭, 堂+室, 寢이 中軸 대칭으로 깊이를 더해가며 길게 배치되어 있다. 문안에 中庭이 있고 庭에서 계단을 통해 堂에 오를 수 있다. 堂의 중앙은 3間이며, 좌우에 東, 西廂이 있고, 堂 뒤쪽에서 室이 있다. 이른바 前堂後室의 구조이다. 堂과 室은 行禮의 장소로서 제사를 위주로 한 공간이므로 『家禮源流』의 『寢廟辯名圖』에서는 「廟」라 指稱하고 있다. 또한 『寢廟之圖』에서는 이 부분을 「正廟」, 뒤쪽에 독립된 채로서 日常生活을 위한 奇居空間인 寢은 「寢廟」라고 稱하고 있어 일부 명칭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建物간의 前後 配置體系 및 中心軸線을 中心으로 양쪽이 對稱인 기본구조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配置構造는 西周시대의 陝西省 岐山縣 鳳雛村 遺址를 통해서 확인된다.¹⁰⁾ 이 宮室은 北坐南向하고 있으며 南쪽 끝에 대문이 있고 문밖에는 版築한 影壁이 있다. 『爾雅』에서는 이를 屏이라 하기도 하고 樹라 칭하기도 한다. 門안에는 中庭이 있으며, 中庭을 면하여 북쪽에 壇을 이루며 堂이 있다. 堂뒤로 廊을 지나면 寢이 있다. 寢과 影壁을 잇는 직선은 影壁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堂의 中間 계단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나 대체적으로 남북 中軸線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堂과 寢의 양쪽에는 南北을 잇는 8개의 방이 東西 대칭을 이루는데, 이것은 『說文』에서 말하는 「堂下周屋」인 「廡」라고 추정된다.

10) 이지역에 관한 發掘報告와 論文으로는

楊鴻勛 「西周岐邑建築遺址初步考察」, 文物 1981. 3. 298호

傅憲年, 「陝西岐山鳳雛西周遺址初探」(1), (2) 文物, 1981. 1. 1981. 3

王恩田, 「岐山鳳雛村西周建築群基址的有關文題」, 文物, 1981, 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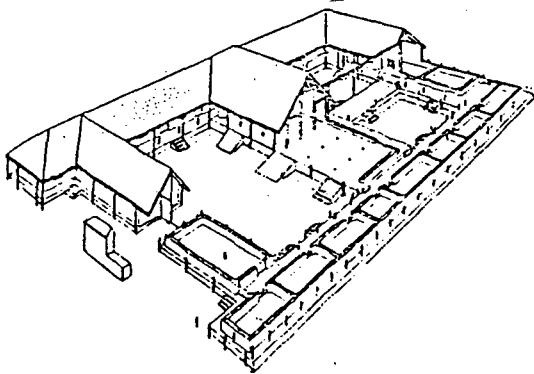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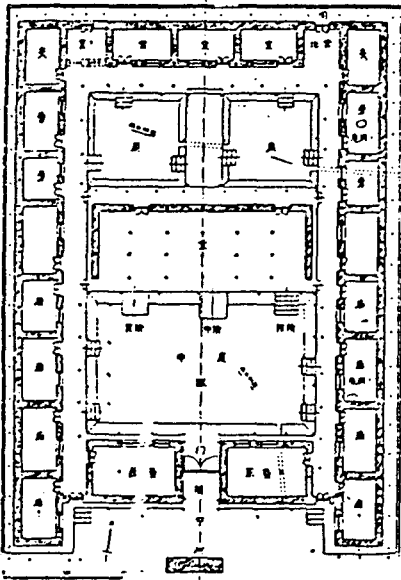


그림2 鳳雛甲組建築復原圖

이와같이 禮書와 遺址를 통해서본 三代 宮室의 配置體系는 門-庭-廟(堂+室)-寢의 構造와 中軸 대칭구조가 기본적 특색이라 할 수 있다. 杜正勝은 그의 論文¹¹⁾에서 宮室의 발전체계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처음의 宮室은 堂室同屋으로 전면의 堂은 제사를 지내는 '廟'이고, 뒤쪽의 室은 기거하고 휴식하는 場所인 '寢'으로서 廟寢이 한 건물을 이루었으나, 그후 堂뒤에 寢이 세워져 원래의 室의 기

능이 보다 뒤쪽에 있는 寢으로 옮겨가면서 堂과 寢은 비록 한 대문에 속해 있으나 별개의 건물로 되었고, 동시에 제사만 지내는 宗廟가 독립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寢廟가 분리되어 독립된 건물이 된 원인은 정치, 사회조직의 발전 및 사회적 지위의 高下와도 연관을 짓는다. 天子는 6寢¹²⁾, 諸侯는 3寢이었으며, 廟數도 『禮記』 王制에 따르면 天子는 7廟, 諸侯 5廟, 大夫는 3廟, 士는 1廟로서 정치 사회적 위치에 따라 寢廟의 수가 달랐음을 볼 수 있다.

분화된 寢·廟는 각각이 完整한 宮室로서 建築制度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건축이 古代 宮室制度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蔡邕는 『獨斷』에서 寢廟同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古學以爲人君之居，前有廟，後有寢，終則前制廟以象朝，後制寢以象寢，廟以藏主，列昭穆，寢有衣冠几杖，象生之具，總謂之宮」¹³⁾

寢廟가 분화된후 宮室의 配置體系는 기존의 門-庭-廟(堂+室)-寢의 中軸 대칭구조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周禮』 小宗伯에 의하면 좌측에 社稷을 세우고 우측에 宗廟를 만들며, 宗廟와 社稷은 庫門과 雉門사이 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庫門과 雉門은 宮室의 五門 중의 하나이다. 漢代 儒者들에 의해 설명되는 宮室制度는 '五門三朝' 또는 '三門三朝'¹⁴⁾로 요약된다. 宮에는 朝라는 구역이 3군데 있는데(外朝 1, 內朝 2) 이를 연결하는

11) 杜正勝, 「宮室 禮制與論理-古代建築基址의 社會史 解釋」, 『國史釋論』 陶布聖先生 九秩榮慶祝壽論文集編輯委員會編, 中華民國 七十六年

12) 『周禮』 天官에 「六宮六寢」에 관련된 기록이 있으며, 漢代 鄭玄의 「三禮圖」는 이에 대해서 상세한 주석을 달고 있다. 六寢은 路寢이 하나요 小寢이 다섯이다. 路寢은 정사를 보는 곳이며, 小寢은 때에 따라 즐기고 쉬는 곳이다. 또한 六宮은 後宮으로 왕후가 왕을 본따서 宮을 만들고 거처하는 곳으로 역시 正寢 하나와 燕寢이 다섯이다.

13) 杜正勝, 前掲書, p. 8 再引用

14) 鄭玄은 鄭衆의 五門三朝說을 따라 象, 庫, 雉, 應, 路 등 다섯개의 문이 南에서 北으로 순서대로 배열되었다고 하였으며, 載震은 그의 「考工記圖」에서 「禮記」 明堂位에 근거하여 天子도 三朝三門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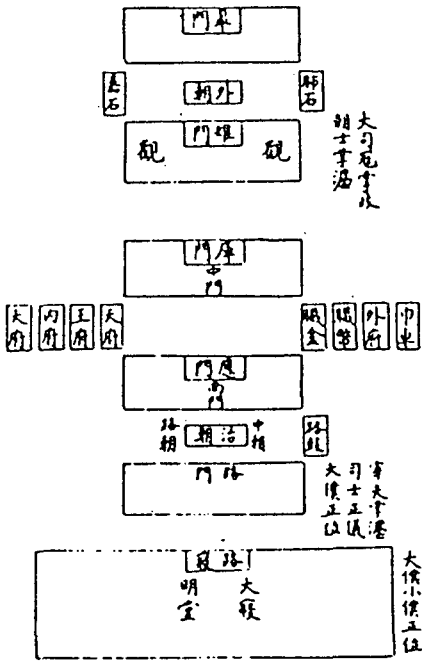


그림3 天子五門三朝圖(欽定四庫全書)

宮門이 5개 또는 3개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이 5개라는 주장은 「天子 五門, 諸候 三門」으로 天子와 王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三門」은 天子도 諸候와 마찬가지로 3개의 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論議를 통하여 宮室의 配置體系는 국가 기본 제도의 확립 및 정치적 발전에 따라 진입에 따른 깊이가 더욱 심화 되었으며, 寢廟도 분리되어 廟는 寢의 東쪽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天子의 宮室制度에 대해서는 '五門三朝'와 '三門三朝'로 異說이 있지만 諸候의 宮室은 '三門三朝'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殿屋·厦屋圖

조선시대 家禮書에는 朱子의 말을 따라 天子와 諸候의 住宅인 殿屋과 卿·大夫·士의 住宅인 厦屋에 대하여 배치 및 평면과 架構를 圖說으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前述한 「寢廟辯名圖」에서 살펴본 古代 宮室制度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李宜朝의 「家禮增解」¹⁵⁾에는 殿屋·厦屋의 架構 및 지붕형태를 묘사한 「殿屋·厦屋五架棟宇圖」를 비롯한 여러 圖面과 함께 「厦屋五架五間地盤之圖」(그림4)가 실려 있어 厦屋의 평면 및 전체적인 배치를 살펴볼 수 있다. 圖說을 통하여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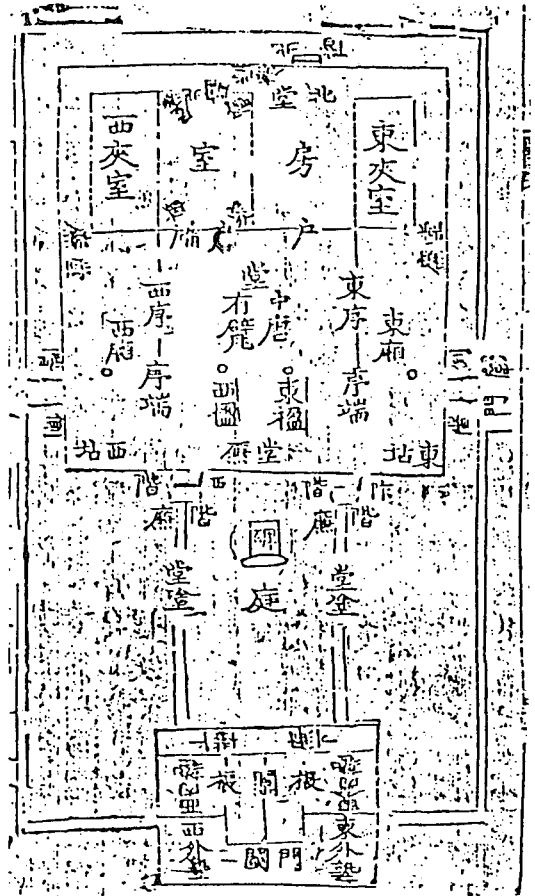


그림4 厦屋五架五間地盤之圖(家禮增解)

15) 李宜朝가 편집한 家禮의 해설서로 1792년(正祖 16년) 송환기의 序文과 跋文을 실어 간행되었다. 이 책은 李宜朝가 家學으로 물려 받았던 家禮의 학구적 연구 성과의 李縮로 부터 전수된 禮學의 계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한 수준 높은 가례의 해설서로서 가례의 정통성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家禮書 가운데 「四禮便覽」과 함께 가장 널리 보급된 책 중 하나이다.

厦屋은 5間으로 前面에는 堂이 있고, 堂 뒤에는 房과 室이 위치한다(前堂後室). 堂은 東·西序에 의하여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가운데 3間을 中堂이라 하고, 左右 각 1間은 東廂과 西廂이 된다. 廂은 또한 東·西堂이라고도 한다.¹⁶⁾ 「爾雅」에는 序를 東西蕃¹⁷⁾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序는 前堂부분을 中堂과 兩廂으로 나누는 隔담이 된다. 가운데 堂의 전면에는 間을 구분하는 두개의 기둥(東·西楹¹⁸⁾)이 있으며, 左右 廂 뒤에는 各各의 夾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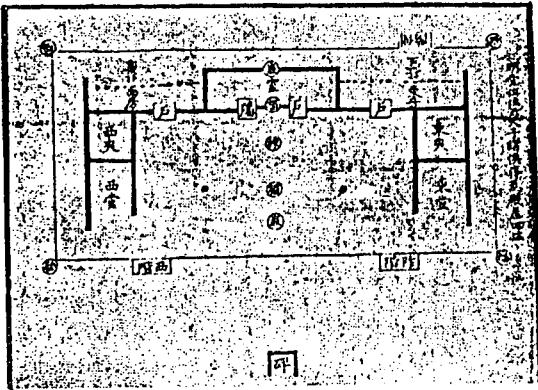


그림5 天子·諸侯 左右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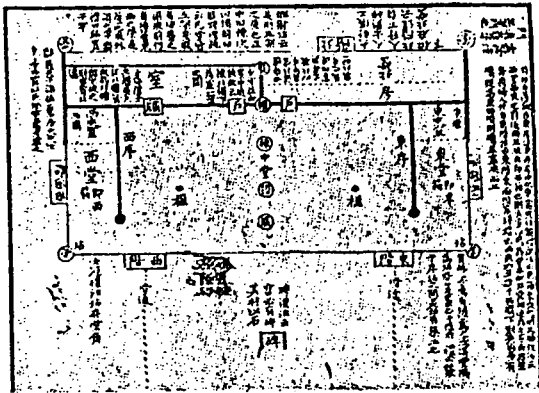


그림6 大夫·士 東房西室圖²¹⁾

이와 같은 住宅의 制度는 殿屋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관계없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堂 뒤쪽 室의 배치에 있어서는 殿屋과 厦屋이 차이가 있다. 殿屋은 堂 뒤쪽의 5間가운데 中央에 室을 두고 左右에는 房이 있으며 양끝 間에 夾室이 배치되었으나, 厦屋은 前面 堂이 5間인 반면 뒷쪽 室은 4間으로 나누어 동쪽에는 房, 서쪽에는 室이 위치하며 양끝 間에 夾室이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士大夫의 住宅과 天子·諸侯의 住宅 制度는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天子·諸侯의 殿屋은 室의 左右에 房¹⁹⁾이 있고, 士大夫는 東房西室로서 前者는 대칭이고 後者는 대칭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견해는 鄭玄의 「天子諸侯在 左右房 大夫士惟有東房西室」²⁰⁾이라는 기록을 따른 것으로 李如圭의 「儀禮 釋宮」 및 朱子大全에서도 이 說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江永은 「儀禮釋宮增注」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東房西室」說이 「禮記」 鄉飲酒儀를 답습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經과 記에도 左房, 東房, 右房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밝히고, 天子에서 士에 이르기까지 「堂뒤의 室에 居하는 것은 左右에 房이 있어서 上下의 制度가 모두 같았다」고 추측하고 있다.²²⁾

그러나 朝鮮時代 家禮書는 대부분이 「朱子家禮」를 근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圖說들이 「東房西室」로 묘사되어 있어 房室의 配置에 있어서 殿屋과 厦屋이 다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지붕구조도 다르다. 殿屋은 우진각 지붕(四阿)이고, 厦屋은 맞배지붕(厦兩頭)으로 양측면이 박공(搏風)을 이루므로써 지붕형태에서도 계층성이 나타난다.²³⁾

19) 「釋宮」에 「房은 放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内外를 은밀하게 격리시킴으로써 잠을 잘 수 있게 함을 가리킨다.

20) 「家禮增解」, 卷一, 49쪽.

21) 劉敦楨, 「大壯室筆記-兩漢第宅雜觀」, 「劉敦楨文集(一)」, 中國建築工業出版社, 에서 도면 재인용

22) 江永, 「儀禮釋宮增注」, 「皇清經解續編」, 卷57, 社正勝, 前掲書 p.5에서 再引用

23)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四阿라는 우진각지붕이 사용되었는데 周·漢代에 이르러서는 매우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품격 높은 建物에 이 지붕 형식을 채용하고 있다.

16) 「儀禮 釋宮」, 「夾室之前日廂, 亦曰東西堂」, 「爾雅, 釋宮」, 「來室前堂謂之廂」

17) 「爾雅」, 「東西蕃謂之序」, 「家禮輯覽」, 卷六 圖說, 「序即蕃也」

18) 楹은 벽과 결합하지 않은 독립적인 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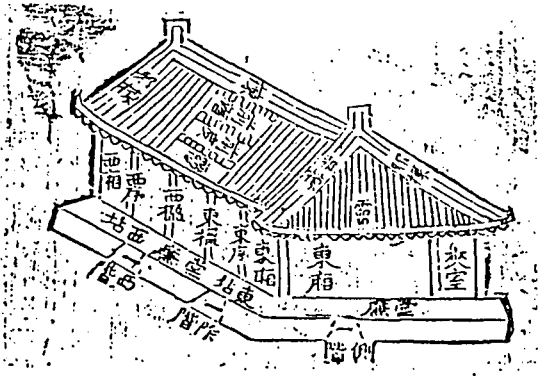


그림7 天子·諸侯 殿屋五架棟宇圖

기본적 架構構造는 5량(五架) 집으로 서로 일치한다. 다만 殿屋은 우진각지붕을 이루기 위해서 종도리가 양쪽 序의 상부에 이르도록 가운데 3間을 가로 지르고, 이 부분에서 4개의 추녀가 접하여 지붕의 경사면을 만들고 있다. 木造建築에 있어서 架는 間과 함께 建築 規模를 표시한다. 木構造를 설계할때 도리간의 위치는 구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증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것으로 건물의 깊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殿屋과 厦屋은 그 배치 및 평면이 宮室制度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五架五間의 構造를 기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前堂後室의 평면 구성을 하였고, 儀禮空間인 前堂부분은 가운데 3間의 대청을 中心으로 좌우에 廂이 대칭적 배치를 이루어 서로 일치하고 있다.

堂 뒤 房室의 配置는 異說이 있지만 朝鮮時代 家禮書에서는 殿屋과 厦屋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지붕의 형태에 있어서도 殿屋은 우진각지붕(四阿), 厦屋은 맞배지붕(厦兩頭)을 취하므로써 階層的 秩序에 따른 位階體系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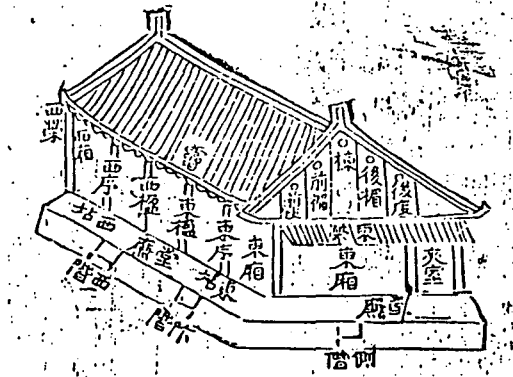


그림8 卿大夫士厦屋五架棟宇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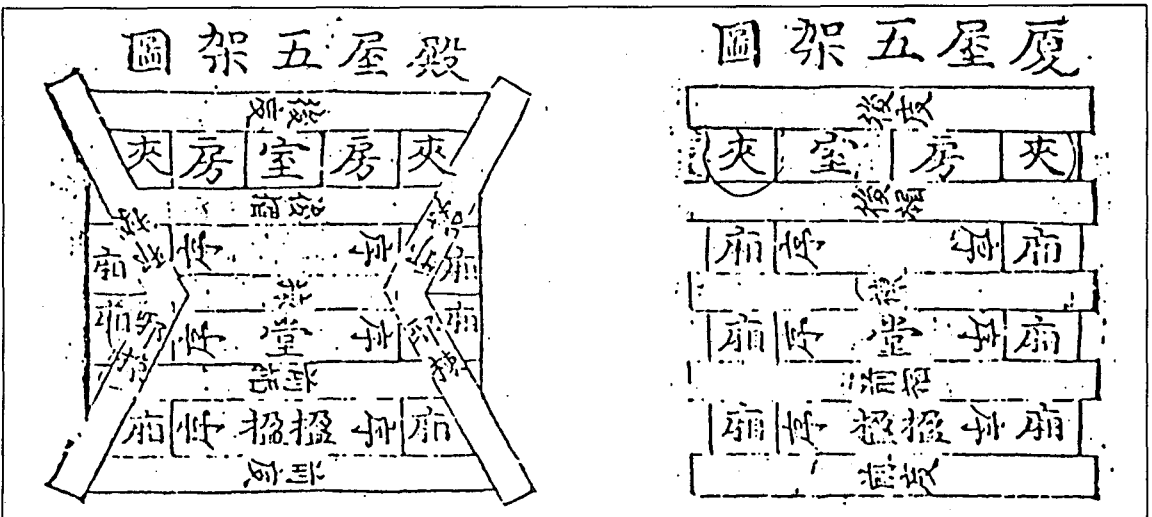


그림9 殿屋·厦屋 五架圖(家禮輯覽圖說)

(3) 家廟圖와 祠堂圖

家廟는 祖上의 神位를 奉安하고 祭享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祠堂이라고 일컬어 진다. 그러나 家廟와 祠堂의 본래 의미는 區分되어 진다. 祠堂은 祖宗이나 옛날 賢人을 제사지내는 廟堂을 통칭하는 것이고, 家廟는 祖上을 제사지내는 곳으로서, 祠堂은 넓은 의미를 家廟는 보다 좁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朱子가 그의 家禮에서 祠堂을 家廟라는 말 대신에 사용함으로써 당시까지의 넓은 의미의 사당에서 좁은 의미 즉 祖上 祭祀의 場所로서 귀일되고, 그 명칭도 같이 통칭되는 것이다.

원래 廟란 말은 先祖의 神主를 설치하고 祭祀지내는 건물을 뜻하였으나 나중에 神에게 제사지내는 곳도 또한 廟라 하였다.²⁴⁾ 여기에 '家'字를 붙이는 것은 다른 官設·民立의 祠廟와 區別하기 위함이었으며, 일반의 祭祀에 대해 父祖의 祭를 家祭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釋名』에는 이것을 「宗者尊也 廟貌也 先祖形貌所在也」라 설명하고 있어 이전에는 廟에 先人의 畫像도 봉안할 것을 알 수 있다. 司馬光(1019-1086)은 書儀에서 이를 좇아 影堂이라 하였으며²⁵⁾, 이후 朱子는 家禮에서 이것을 祠堂이라 하여 祠堂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이후 家廟와 함께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朱子는 「家禮」에서 옛날의 廟制는 經文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또한 지금의 士庶人 가운데 친한 사람은 부득이 廟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祠堂이라 이름짓고, 古制에 따른 家廟制度和 俗禮를 많이 쓴 祠堂制度를 밝히고 있다.²⁶⁾ 따라서 家禮의 卷頭에는 먼저 「家廟之圖」가 나오고, 다음쪽에는 儀禮시 陳設과 序立을 같이 볼 수 있는 「祠堂之圖」가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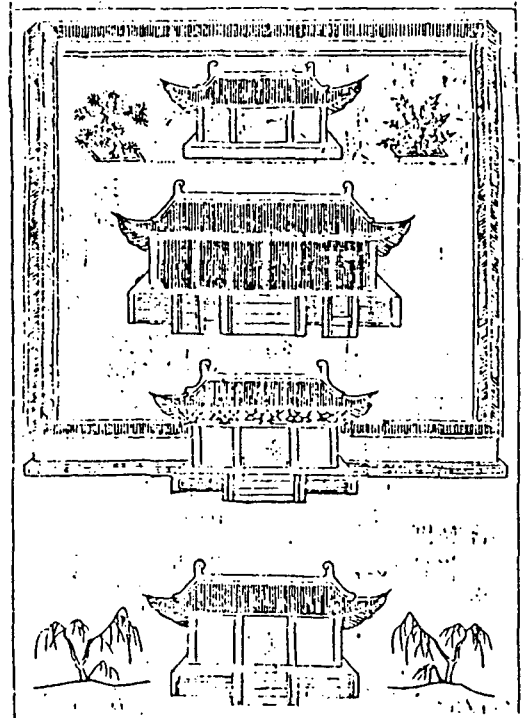


그림10 家廟之圖(家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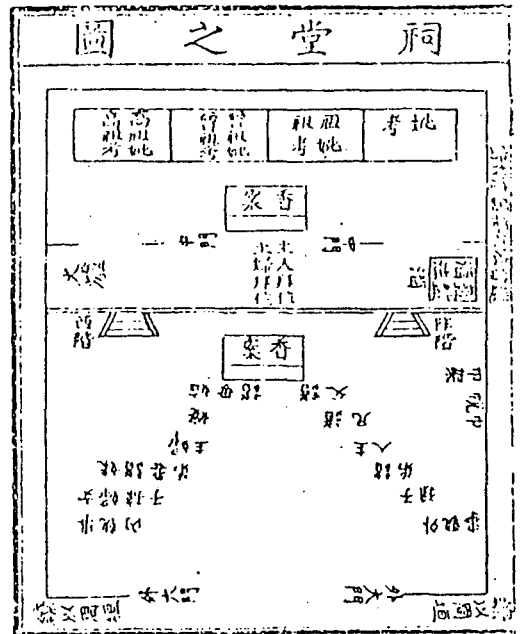


그림11 祠堂之圖(家禮輯解)

24) 設置先祖木主 以供祭祀之建築日廟 後祀神之處 亦日廟 「中文大辭典」(張哲秀, 「祠堂의 歷史와 位置에 관한 研究」 文化財 研究所, 1990, p. 12 再引用)

25) 朝鮮祭祀相續法論 序說,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14年, p. 586

26) 「家禮」 祠堂條 然古之 廟制不見於經 且今士庶人之賤 亦有所不得爲者 故特以祠堂名之 而其制度亦多用俗禮云

「家廟之圖」에 의하면 中央에 廟가 위치하고 廟 뒤에는 寢을, 前面에는 門이 놓여져 있다. 따라서 家廟는 전체적인 배치가 門·庭·廟·寢의 순서대로 축을 중심으로 대칭적 배치를 하므로써 古代 宮室制度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궁실에서 제사를 지내는 廟와 기거하고 휴식을 취하는 寢은 본래 한건물로 이루어졌으나, 정치·사회의 발전에 따라 寢·廟가 분리된 후 각각의 건물이 이 宮室制度에 기본을 두고 발전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家廟之圖」에서 廟는 堂으로서 先祖의 神主를 奉安하고 제사하는 곳이며, 寢은 宮室의 寢처럼 생전의 의복 및 기기등을 保管하는 곳이다. 4면에는 垣牆을 두르고 家廟의 門밖에는 또 하나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 용도는 분명치 않다.²⁷⁾

그러나 이와 같은 家廟는 朱子의 말에 따르면 그 전에는 命士들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朱子는 貴賤에 관계없이 士庶人도 세울 수 있도록 祠堂이라 새롭게 이름짓고 俗禮를 참고하여 그 制度를 家禮에서 제시하고 있다. 祠堂과 家廟의 두 드러진 차이는 祠堂은 廟 뒤쪽에 寢을 별도로 세우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宮室制度和 비교할때 殿屋과 厦屋에서도 볼 수 있다.

사당의 규모는 3間에 五檁집으로 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집터가 좁으면 한間 사당을 세워도 된다. 내부에는 마루 또는 전들을 깔고 북쪽 1架를 나무판으로 등분하여 4개의 龕室을 만들고 신위를 모시는데, 古制를 따른 家廟에서는 감실을 중앙에 두고 좌우 夾室을 만들어 이 夾室에는 代盡한 신주를 모셔 두었다. 그러나 祠堂에서는 양옆의 夾室 없이 4개의 감실만을 만들고 代盡한 신주는 묘 곁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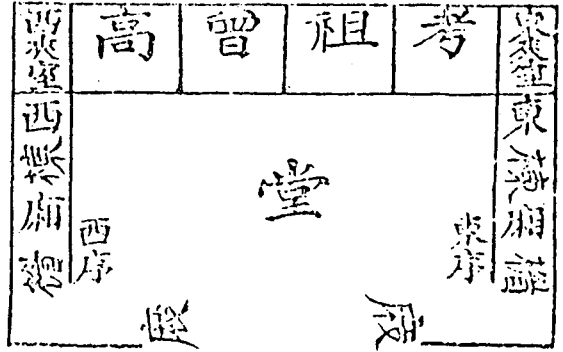


그림12 朱子家廟 五架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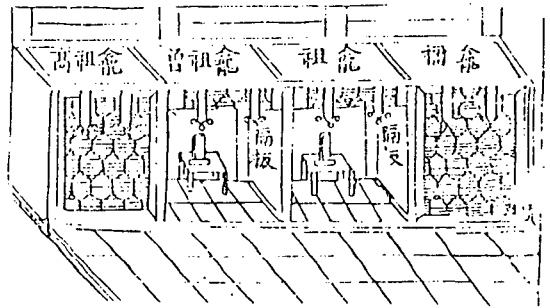


그림13 祠堂 龕室圖

祠堂의 문 밖에는 두개의 섬돌을 동쪽과 서쪽에 놓는다. 이 두 섬돌은 모두 3단으로 하는데 동쪽에 있는 것을 조계라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을 서계라 한다. 그 앞에는 집터의 형편에 따라 집을 지어 지붕을 덮는다. 이것은 祠堂에 參禮할 때 가족들이 서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序立屋이라고 부른다. 禮書에서는 序立屋의 형태에 대해서는 두가지 異說을 보인다. 溪溪 金長生은 陵寢의 丁字閣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陶庵 李縮는 땅이 좁고 넓음에 따라 가로로 지붕을 이을 수 있도록 橫屋의 형태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禮書에서 나타나는 그림에서도 두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27) 遺構를 통하여 이 건물의 용도를 추측해보면 正寢이 1694년(肅宗 20년)에 창건된 백불고택의 報本堂이나 울진의 황의석가의 海月軒처럼 별당의 기능과 함께 門中의 宗會등을 위한 건물임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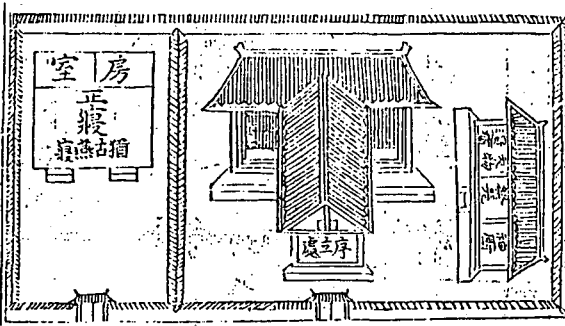


그림14 祠堂全圖(家禮輯覽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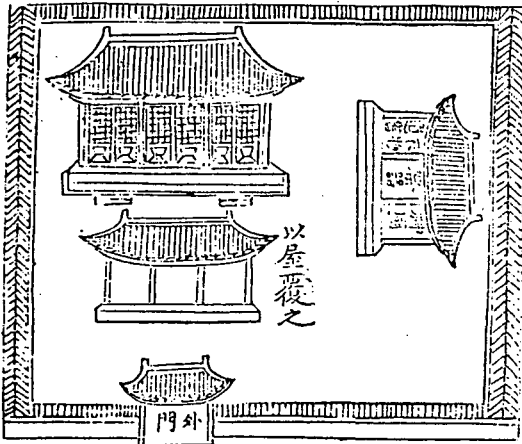


그림15 祠堂全圖(家禮增解)

序立屋의 동쪽에는 西向으로 3間の 廚庫를 세워 遺物과 祭器를 보관하고, 나머지 한間은 祭需를 준비하는 神廚로 사용한다. 한칸 祠堂을 세워서 廚庫를 짓지 못한 경우에는 큰 櫃를 두개 만들어 사당 안의 동쪽과 서쪽 벽 아래에 각각 두고 동쪽에는 祭器를 보관하며, 서쪽의 櫃에는 遺書와 遺物을 보관토록 한다.

또한 家禮에서는 君子가 집을 지을때 먼저 祠堂을 짓고 그 위치는 正寢의 동쪽에 세우도록 하였다. 이때 좌향은 어디로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전면을 南으로 하고, 뒤를 北으로 하며, 左는 東으로 右는 西로 정하고 있다.²⁸⁾ 이것

28) 『家禮』, 卷一, 通禮, 祠堂條

凡屋之制 不問何向背 但以前爲南 後爲北 左爲東 右爲西 後皆放此

은 家廟의 坐向이 물리적인 絕對向보다 相對向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땅이 좁을 때에는 사당을 廳事의 동쪽에 세워도 괜찮다. 廳事는 『家禮輯覽』과 『家禮增解』 등의 圖說에는 '猶古正寢'이라 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학자인 辛夢參의 『家禮輯解』에서는 퇴계의 말을 인용하여 廳事를 대문 안의 小廳, 즉 斜廊이라 註를 달고 있다.

禮書에서 이와같은 祠堂의 위치를 보여주는 圖面으로는 다음과 같은 正寢과 祠堂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立祠堂於正寢東之圖」와 廳事와 祠堂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立祠堂廳事東之圖」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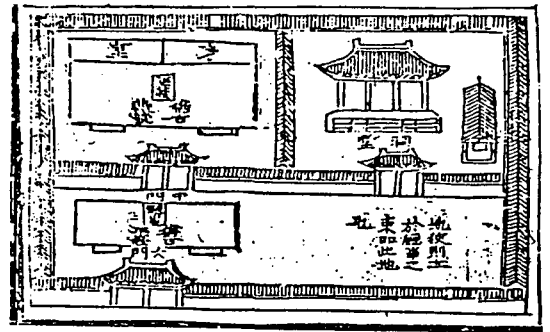


그림16 立祠堂於正寢東之圖(家禮增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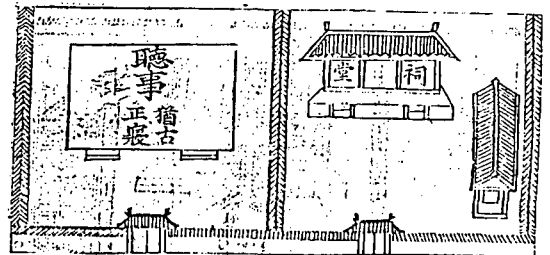


그림17 立祠堂廳事東之圖(家禮輯覽圖說)

4. 禮書의 建築的 圖面과 朝鮮時代 建築의 相關性

조선시대 통치자들이 禮書 상의 建築制度를 理想的인 古制로써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太祖가 즉위 후 내리는 敎書를 통하여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天子는 七廟를 세우고 諸侯는 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制度이다. 高麗王朝에서는 昭穆의 順序와 堂寢의 制度가 法度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박에 있으며, 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制度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규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할 것이다.」²⁹⁾

위의 敎書에서 볼 수 있듯이 옛날의 制度(古制)를 理想的 典型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 古制란 어떤 時期의 制度를 칭하고 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古制를 밝히는 것은 조선시대 건축조영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太祖의 敎書에서 典型으로 언급되는 古制는 그 내용으로 보건데 「禮記」 王制와 「周禮」 考工記의 營國制度를 따르고 있다. 「禮記」와 「周禮」는 「儀禮」와 함께 三禮라 일컬어지는 중요한 典籍으로 禮樂이 처음으로 정리된 周代 이후 전해온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戰國時代부터 漢初에 걸쳐 儒學者들에 의해서 再編成된 것이다. 그 후 禮制는 귀족사회에서 再統一帝國이 이룩된 隋唐時代에 와서 재정리가 이루어지며, 宋代에서 약간의 改制가 있었다 하더라도 唐律을 기본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宋代 性理學을 받아들여 통치이념으로 삼은 朝鮮時代 禮制는 朱子學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原流를 거슬러 올라가면 周代까지도 소급되어진다. 朝鮮王朝의 開創의 주역인 鄭道傳이 國政의 대강을 잡아 太祖에게 올린 「朝鮮

經國典」은 「周禮」의 六曲체계를 딴 것이며, 建築에 있어서도 漢城의 都城計劃이 「周禮」 考工記의 都城制를 基底로 하였다든 주지의 사실을 통해서도 이와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朝鮮時代 儒學者들에 의해서 편찬된 많은 禮書 중에는 禮制의 일부로서 三代의 宮室制度를 밝힌 「寢廟辯名圖」를 비롯하여 殿屋·厦屋圖 등 建築의 古制를 圖說로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建築制度는 儒家의 尚古主義의 特性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의 理想的의 틀로서 朝鮮時代 建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遺構를 통해서 살펴보면, 朝鮮時代 治者 및 儒者들과 관계되는 제 건축에 있어서 禮書에 나타나는 建築的 圖面과 유사한 평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조선시대 官學과 私學인 鄉校와 書院의 講堂(明倫堂)은 거의 모든 건물이 정면 5間 규모에 3間 대청을 중앙에 두고 동·서에 각각의 耳房을 배치하므로써 殿屋과 厦屋 및 古代 宮室의 前堂 平面構造와 일치하고 있다.

宮殿의 寢殿에서도 이와같은 평면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현존하는 寢殿을 비롯하여 「東闕圖」와 「東闕圖形」 등 사료를 통하여 살펴본 조선왕조 宮闕寢殿의 평면구성 형식은 정면 어칸 3칸을 반되로 개방하고 그 바닥은 배면까지 모두 廳으로 구성하였으며, 廳의 좌우에는 방을 대칭으로 배치하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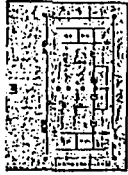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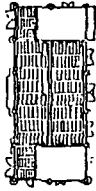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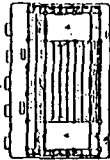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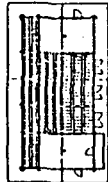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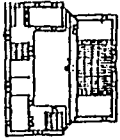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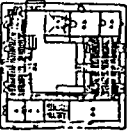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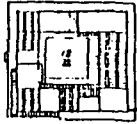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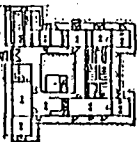

儒者들의 講學과 休息을 위한 일부 書堂과 精舍 등에서도 동일한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30) 조선의 궁궐 寢殿중 현존하는 것은 燕寢으로서 昌德宮의 大造殿과 德壽宮의 康寧殿이 있으며, 그밖에 왕비의 거처인 中殿, 왕대비의 거처인 大妃殿 등 대내의 寢殿으로는 景福宮의 慈慶殿, 昌慶宮의 通明殿, 慈慶殿, 歡慶殿, 景春殿 등을 비롯한 몇棟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宮闕志」를 비롯하여 「東闕圖」, 「東闕圖形」 등 문헌사료를 통하여 당시의 景福宮 康寧殿, 昌德宮 大造殿, 德壽宮 感寧殿 등의 모습들도 추정해 볼 수 있다.

29) 「太祖實錄」, 太祖 元年 10月, 辛酉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 堂寢之制 不合於經 文在城外 社稷雖在於右 其在有扈古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

丑1 禮書의 建築의 圖面과 有關한 平面

殿屋·厦屋	棚校·書院	書堂	慶殿
<p>殿屋</p>  <p>厦屋</p> 	 <p>명륜당 평면</p> 	<p>芝山書堂</p>  <p>하회 花川書堂</p> 	<p>昌慶宮 歡慶殿 (東闕圖形)</p> 
齋舍	別室·精舍	住宅	昌慶宮 大造殿 (東闕圖形)
<p>安東 權氏 所等齋舍</p>  <p>莒城 金氏 西枝齋舍</p> 	<p>崇烈堂</p>  <p>양동 무침당</p> 	<p>산동만가</p>  <p>栗峴洞 勿替堂</p> 	<p>昌慶宮 景春殿 (東闕圖形)</p> 

뿐만아니라 始祖廟의 管理 및 墓祭를 奉行하기 위하여 지어진 조선시대 齋舍의 본채에서도 이러한 평면을 발견할 수 있어 조선시대 儒者들은 이와같은 평면을 하나의 이상적인 建築形制로 인식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正寢도 이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ㅁ자형 주택은 평면의 구성방법이 두가지의 명확한 類型으로 대별되어 진다. 하나는 2·3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너방을 대칭적으로 배치한후 각방에서 직교되게 꺾여 부엌과 부속실들을 연결하고, 그 전면에 행랑과 사랑채를 배치하므로써 ㅁ자형을 이루는 ㅉ이고, 다른 하나는 민가형과 같이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을 一字形으로 배치한후 이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외적으로 동일한 ㅁ字形을 이루는 ㅉ이다. 이 중에서 前者의 正寢類型은 대부분이 정면 3칸의 廳을 중심으로 좌우에 耳(廂)房(안방과 건너방 또는 고향)이 배치되는 구조로서 禮書에 실려있는 殿屋·厦屋의 평면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房·室의 배치는 차이가 있다. 실생활에 있어서 殿屋과 厦屋의 房室만 가지고는 주거의 용도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堂의 東·西에 廂房을 덧붙여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며 온돌 구조에 편리도록 하므로써 ㅉㅁ字形이나 ㅁ字形을 이루게 된 것이다.

상류주택과 禮書상의 건축제도와와의 관계는 조선시대 주택에서 조상의 신위를 모시기 위하여 別棟으로 세운 祠堂³¹⁾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존하는 상류주택의 祠堂은 거의 모두가 朱子家禮의 祠堂制度를 따라서 그 間數가 3間 또는 1間을 하고 있으며, 祠堂의 위치에서도 禮書의 圖說을 좇아 正寢의 동쪽 또는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禮書의 建築制度에 대한 그들의 엄격한 인식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5. 結論

조선시대 儒學者들에 의해 편찬된 禮書의 圖說을 중심으로 건축의 古制를 파악하고, 禮書상의 建築制度和 조선시대 건축과의 상관성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朝鮮時代 支配層들은 禮書상의 建築制度를 하나의 理想的 典型으로 認識하였으며, 그 制度는 三代(夏·殷·周)의 制度이다. 특히 「寢廟辯名圖」에 나타난 三代 宮室制度는 禮書에 표현된 住宅(殿屋, 厦屋) 및 廟(家廟, 祠堂)의 建築制度에 있어서도 기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사회·정치적 발전에 따라 寢·廟가 분리되면서 각각의 建築制度가 宮室制度에 기본을 두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禮書에 나타난 圖說을 통하여 파악한 건축의 古制는 다음과 같다.

1) 三代之 宮室制度는 門-庭-廟(堂+室)-寢이 中軸을 중심으로 깊이를 더해가며 대칭적 배치를 이루고 있다. 堂은 行禮의 場所로서 廟라고 일컬어지며, 일상생활을 위한 寢은 堂 뒤에 배치된다. 堂은 중앙의 3間 대청과 좌우에 東·西廂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堂 뒤쪽에는 室이 배치되어 있어 前堂後室의 평면구조이다. 이와같은 宮室의 配置體系는 사회·정치적 발전에 따라 진입에 따른 깊이도 심화되었으며, 寢·廟가 분리되면서 기존의 門-庭-廟-寢의 中軸對稱構造도 변화되었다.

2) 天子·諸侯의 住宅인 殿屋과 鄉·大夫·士의 住宅인 厦屋의 建築制度도 儀禮空間인 前堂은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東·西廂을 대칭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五間五架의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宮室制度는 堂 뒤쪽에는 寢이 別棟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殿屋과 厦屋은 前堂 뒤쪽의 房·室이 寢의 기능을 수용함에 따라 별도의 寢을 건립하지 않고 門-庭-堂+室의 配置體系를 하였다.

3) 家廟도 三代 宮室制度를 따라서 門-庭-廟-寢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적 배치를 한다. 그러나 家廟는 命士 이상만 세울 수 있었으므로 朱子는 「家禮」에서 貴賤에 관계없이 廟를 설립할 수 있도록 祠堂이라 이름짓고 俗禮를 참고하여 그 제

31) 이에 관해서는 洪升在,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禮制的 體系에 관한 研究, 홍익대 박사논문, 1992, pp. 108~150 參考

도를 밝히고 있다. 禮書에서 규정하고 있는 祠堂은 家廟와 비교할때 殿屋·厦屋과 같이 廟 뒤쪽에 別棟으로 있던 寢이 없어지고, 廟 내부에서도 좌우 夾室 없이 4개의 龕室 만을 만든다. 또한 사당의 위치는 正寢(또는 廳事)의 동쪽에 세우며 그 間數는 3間이 원칙이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집터가 좁을 때는 한칸을 세워도 된다.

둘째, 조선시대 지배층들은 上記의 古制를 理想的 形制로 인식하므로써 조선시대 건축들은 이것과 연관성을 갖는다. 조선시대 鄉校와 書院의 講堂(明倫堂)을 비롯하여, 궁궐의 침전, 別堂,

精事, 齋舍 등 儒者들과 관계되는 제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면 3間 대청을 중앙에 두고 동·서에 각각의 耳房을 배치하는 평면구조는 殿屋과 厦屋 및 古代 宮室의 前堂 平面構造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상의 古制가 이상적 틀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禮書상의 건축제도와 조선시대 건축과의 밀접한 관계는 현존하는 상류주택의 정침 평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祠堂의 間數 및 正寢과 祠堂과의 配置關係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家禮
2. 禮記
3. 家禮源流(俞樾 撰)
4. 家禮增解(李孟宗 撰)
5. 家禮輯覽(金長生 撰)
6. 家禮輯覽圖說
7. 家禮輯解(辛夢參 撰)
8. 家禮諺解(申湜 撰)
9. 家禮要解(朴世采 撰)
10. 朝鮮祭祀相續法序說,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4年.
11. 劉敦楨, 「大壯室筆記」-兩漢第宅雜觀, 劉敦楨文集(一),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2. 楊鴻勛 「西周岐邑 建築遺址初步考察」文物, 1981. 3.
13. 傅熹年, 「陝西岐山鳳雛西周遺址初探」文物, 1981. 1.
14. 王恩田, 「岐山鳳雛村西周建築群基址的有關文題」文物, 1981. 1
15. 張哲秀, 「祠堂의 歷史와 位置에 관한 研究」, 문화재연구소, 1990
16. 洪升在,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禮制의 禮系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論文, 1992.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al Drawings on Yâe Seô in the Cho-Sun Dynasty

Hong, Seung Jai
(Hong Ik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In Cho-Sun Dynasty, since Czhu-Ja Gâ Râe be introduced in late Korea dynasty, many kinds of Yâe Seô by a personal or national edition had been published, based on supports of the political ideology.

Especially, in the age of governing by 'Yâe' in 16·17c, after completion of publishing 'Oh Râe Yi(1474)' 'Geong Guk Dae Jeon(1469)' in late 15c, norm of 'Ga Râe' has prevailing and the quantity of publishment of it is more growing.

Generally, the contents of these kinds of Yâe Seô is intended to interpret the czhu-Ja Gâ Râe, and furthermore, some kinds of it, described directly architectural institutions as a part of Yâe Jâe through architectural drawings, with quatating chinese scholar's theory.

It can be said that architectural institution on Yâe Seô may be a kind of political institution as a tool for execution of a ideal ideology in Confucianism.

In this Contex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governing-class in Cho-Sun Dynasty refered to the architectural institution on Yâe Seô as a ideal norm and, in constructing or organizing buildings, it was taken in account as a 'frame of reference'.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architectural drawings on Yâe Seô, for certifying interrelationship the institution which is executed in the drawings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and organization in Cho-Sun Dynasty.